

한국 가계의 잠재소비유형 변화와 결정요인

최홍철¹, 유재언^{2*}

¹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시간강사, ²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The effect of the transition of life course on changes in consumption patterns of Korean Households

Hong-Cheol Choi¹, Jaeon Yoo^{2*}

¹Lecturer, Department of Consumer Scienc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²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ach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2010년과 2017년 두 시점에서 한국 가계의 소비유형 전이 패턴과, 소비유형간 전이에 미치는 생애주기의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2010년과 2017년 조사의 4,717가구 자료를 활용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 및 로지스틱회귀모형 분석을 하였다. 두 시점의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 동일하게 식비중심형, 교육비중심형, 의료비중심형, 내구재중심형의 4개 유형이 도출되어 가계의 소비유형이 두 시점 사이에 커다란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소비유형의 변화를 살펴본 잠재전이분석 결과는 가구 수준에서 두 시점 간 소비유형 변화가 활발히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소비유형 전이가 생애주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로지스틱회귀모형분석을 한 결과 혼인지위 변화, 자녀의 출생 및 분가가 유의한 설명변수였다. 이는 소비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업에서 마케팅 대상을 정할 때 가구 소비유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생애과정관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주제어 : 소비유형, 소비변화, 생애과정, 가구, 잠재전이분석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atterns of transition of consumption patterns in Korean households in 2010 and 2017, and the impact of the life cycle on the transition of consumption patterns between the two time points. Using information on 4,717 households from the 2010 and 2017 data of the Korean Labor Panel Survey, we examined the effect of the family life cycle on changes in consumption patterns. The results of the latent transition analysis on the change in consumption type showed that the change in consumption type between the two points of time at the household level was relatively active.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s reported that the transition of consumption type varies depending on the life cycle, such as changes in marital status, birth and independence of children. These results provide the implication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amily life course how the transition between their consumption types occurs when the government establishes consumption policies and companies set marketing target groups.

Key Words : Consumption Type, Consumption Change, Life Course, Household, Latent Transition Analysis

*Corresponding Author : Jaeon Yoo(jejowa0205@gachon.ac.kr)

Received April 17, 2020

Accepted May 20, 2020

Revised May 6, 2020

Published May 20, 2020

1. 서론

소비패턴의 변화는 가계 생활양식의 변화를 대변한다. 한국 사회는 지난 50년간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가계의 소비패턴도 다양한 형태로 변화여 왔다. 높은 경제성장을 이어오던 한국사회는 2010년대 들어 경기성장이 둔화되고 최근까지도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가계의 소비비목별 소비비중 역시 2010년대 들어 이전까지와는 달리 급격한 변화 없이 비교적 일정한 비율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1]. 그러나 가계의 소비비목간 소비비중이 일정한 양상을 보인다고 하여 개별 가계의 소비패턴이 시간에 따른 변화 없이 일정한 형태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소비비목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가계는 주어진 예산제약 하에서 총소비지출규모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기존의 소비패턴을 가족구성원의 목표에 맞게 재설정함으로써 가계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2]. 즉 가계는 소득수준과 소비규모에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도 소비패턴을 가족구성원의 목표에 맞게 조정해나감으로써 변화에 적응해 갈 수 있는 것이다.

소비패턴은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설정한 목표와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표현[2]으로, 복지제도나 정책 수립을 위하여 고려해야 하는 대상을 파악하는데 적절한 기준이 된다[3,4]. 결국 우리는 가계소비패턴의 변화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가계가 살아가는 생활양식을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가계에 필요한 제도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가계의 소비패턴을 살펴보고자 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 왔으며, 가계의 소비패턴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여 왔는지를 파악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개별 가계가 각각 속한 소비패턴유형에서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 다른 소비패턴유형으로 어떻게 전이해 가는지, 즉 개별 가계의 유형변화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동일 가계의 소비패턴유형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소비패턴을 유형화함에 있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소비패턴유형 도출의 통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20차(2017년)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첫째,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이용하여 2010년과 2017

년 각 연도에서 한국 가계의 소비패턴이 어떻게 유형화 되는지 살펴본다. 둘째, 2010년의 각 소비패턴유형에 속했던 가계가 2017년 어떤 소비패턴유형으로 전이해 가는지 그 변화양상을 파악한다. 셋째, 두 시점 사이에 소비패턴유형의 변화가 나타나는 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특히 가장 많은 가계가 속한, 즉 한국 가계의 대표적인 소비패턴유형에서 다른 소비패턴유형으로의 전이가 나타나는 가계의 전이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가계의 소비패턴을 연구하는 연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과 정책입안자에게 적절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선행연구 고찰

2.1 소비패턴유형화에 관한 연구

소비패턴은 가계의 자원을 각각의 소비비목에 배분함으로써 각 소비비목들이 내재적으로 구조화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5], 가계가 자신이 속한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가계 구성원의 목표와 가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원을 배분함으로써 나타나는 생활양식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2]. 가계의 소비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각 소비비목에 대한 가계의 소비비중을 분석해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가계의 소비패턴을 살펴보는 많은 연구들이 소비비중을 분석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소비비중은 다시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 사이의 소비비중을 비교하거나, 소비비중을 이용하여 소비패턴을 유형화하는 형태로 주로 이루어졌다. 가계의 소비패턴을 유형화하여 살펴보게 되면 가계가 어떤 비목을 중심으로 소비를 하는지, 각 가계가 어떤 소비패턴유형에 속하는지 파악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소비패턴을 유형화함에 있어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군집분석으로, 군집분석을 이용한 유형화는 1인가구, 고령가구, 맞벌이가구 등과 같이 특정 가구를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졌다. Jun[6]은 1인가구의 소비지출패턴유형을 파악하였다. 칩거생활지출형, 사교적 가정생활 지출형, 의료비 지출형, 월세교통비 지출형, 치장외식오락비 지출형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Sung[7] 역시 1인가구의 소비지출유형을 연령대에 따라 분류하여 청년층 1인가구는 다양한활동지향형, 음식숙박비지출중심형, 주거비지출중심형, 교통비지출중심형으로, 중장년층1인가구는 음식숙박비지출중심형, 식료품비지출중심형, 주거비중심형, 교통비지출중심형으로,

65세 이상 1인가구는 식료품비지출중심형, 주거비지출중심형, 균형지출형, 보건비지출중심형으로 구분하였다. Kim[8]은 고령가구를 보건의료중심형, 저축중심형, 생계중심형, 식비중심형의 4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Yang[9]은 맞벌이가구의 소비패턴유형을 소비지출유형화, 교육비지출형, 기타소비지출중심형, 생필품및취업관련지출형, 교통통신비지출형, 비소비지출비목지출형으로 분류하였다.

소비패턴 유형화는 잠재계층분석 또는 잠재프로파일 분석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Choi와 Rha[10]는 잠재계층분석을 이용하여 정보원천 선호 유형을 다양한 정보 선호자, 객관적 정보 선호자, 대인적 정보 선호자, 집약적 정보 선호자, 오프라인 정보 선호자 등의 5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Park과 Hong[11]은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이용하여 은퇴베이비부머의 소비패턴을 기초생활중심형, 균형소비생활형, 사회생활중심형, 여가생활중심형, 교육비중심형의 5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잠재분석은 유형의 개수 결정시 군집분석에 비해 통계적 근거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이용하여 가계의 소비패턴을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2.2 소비패턴유형의 변화에 관한 연구

소비패턴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한국 가계의 소비패턴 변화를 종단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대부분 가계의 소비비중이나 소비규모, 소득탄력성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Choi[1]는 1963년~2016년 가계동향조사 2차자료를 이용하여 현대 한국 가계의 소비양식 변화를 소비지출비중과 소득탄력성의 변화를 통하여 고찰하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소비시기를 구분하였다. Cho와 Yang[12]은 1980년에서 2002년 사이 도시가계연보를 이용하여 한국 가계의 소비지출규모와 비목별 소비지출비중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Yang[13]은 1970년~1990년 사이 소비비목의 소득탄력성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고 이를 기본재, 선택재 등으로 재분류하였다. 위 연구들과 같이 가계의 소비패턴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되면 우리나라 가계의 전반적인 소비패턴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별 가계들의 소비패턴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알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개별 가계의 소비패턴 변화를 이해함으로써 각 가계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가계가 시간에 따

라 소비패턴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두 시점 사이에서 가계의 소비패턴유형이 어떻게 전이해 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개별 가계의 소비패턴 변화에 좀더 주목해 보고자 하였다.

2.3 생애주기의 변화와 소비패턴유형변화

생애주기란 인간이 가족생활에서 경험하는 혼인, 출산, 자녀양육, 노후 등 각 단계의 시간적 연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이 결혼을 통해 가족을 형성하고 출산을 통해 확대되었다가 자녀가 분가함으로써 축소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14]. 생애주기 단계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기준에 의해 구분된다. 생애주기라는 개념이 자리 잡기 시작한 초기에는 주로 부모 또는 자녀의 연령에 의해 생애주기단계를 구분하였다.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 첫째 자녀의 나이를 생애주기단계 구분의 기준으로 삼거나[15], 막내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였고[16], 첫째 자녀와 막내 자녀의 나이를 모두 고려하기도 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자녀의 성장단계를 기준으로 하되 연령이 아닌 학령기 단계를 기준으로 가계의 생애주기단계를 구분하기도 하였다[17,18]. 더 나아가 생애주기단계를 구분함에 있어서 단순히 자녀의 연령뿐만 아니라 결혼이나 이혼, 사별 등 혼인지위를 고려하거나[19], 자녀의 출산과 분가시기, 배우자의 사망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생애주기단계 구분의 시점으로 보기도 한다[20]. 또한 부부의 혼인지위, 자녀의 연령과 자녀의 독립여부와 더불어 은퇴라는 고용상태의 변화도 생애주기단계의 기준점이 되기도 한다[21].

이처럼 생애주기단계의 구분에는 가구주를 포함한 부부의 연령과 혼인지위 변화, 은퇴와 같은 고용상태의 변화와 함께, 자녀의 유무나 자녀의 연령, 또는 자녀의 교육상태 등과 같은 자녀관련 변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가계의 생애주기단계를 구분하는 것은 결국 가계의 재무적 특성이나 소비패턴이 각 생애주기단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며, 단순한 연령의 증가보다는 생애주기 단계가 가계의 재무적 위치를 평가하는데 더 설명력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다[16]. 이러한 생애주기단계의 변화에 따라 가계의 소비지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22], 특히 내구재 등과 같이 비교적 지출규모가 큰 소비비목에 대한 소비는 생애주기 단계와 관련이 깊은 모습을 보인다[16]. Chun과 Lee[23]에서도 도시

근로자 가계의 소비비목별 소비지출이 생애주기에 따라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생애주기 단계의 변화가 소비패턴유형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지, 특히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변화가 가계의 소비패턴유형 변화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지 밝혀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2010년과 2017년 한국 가구의 대표적인 소비유형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연구문제 2: 2010년과 2017년 한국 가구의 소비유형이 변화된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2010년과 2017년 한국 가구의 소비유형 전이에 미치는 가족생애주기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3. 연구방법

3.1 자료 및 분석대상

소비유형 변화에 미치는 가족생애주기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노동패널 2010년(제13차)과 2017년(제20차)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4,717가구를 대상으로 잠재전이 및 로지스틱회귀(logistic regression 이하 로짓)모형 분석을 하였다. 1998년(제1차)부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5,000가구를 대상으로 반복 추적하여 조사하는 한국노동패널은 2009년(제12차)에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확보하기 위해 2단계 집락 추출한 1,415가구를 추가했고 2017년(제20차) 조사까지 완료하여 그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2009년 추가된 가구와 함께 원표본가구로부터 분가한 가구까지 모두 더한 통합 표본 기준으로 2017년 6,683가구를 조사하는 데 성공하였다. 2009년 한국노동패널조사가 전국을 대표하기 위한 목적에서 표본을 추가했지만, 2009년에는 세계 금융 위기가 한창이었을 때였다. 이러한 시기효과가 가구의 소비유형에 다른 연도들과 달랐을 개연성이 높아 이 연구에서는 1년이 지난 2010년과 최근인 2017년을 전이를 비교하는 두 시점으로 선택하였다. 한국노동패널은 가구

Table 1.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analysis subjects

Control variables	n/mean	%/S.D.	Independent variables	n/mean	%/S.D.
Sex	4,717	100.0	Marital status	4,717	100.0
Man	3,638	77.1	Married→married	3,265	69.2
Woman	1,079	22.9	Unmarried→unmarried	202	4.3
Age	53.3	14.9	Unmarried→married	101	2.1
Education	4,717	100.0	Married→Dissolution	123	2.6
Under middle school	1,710	36.3	Dissolution→Dissolution	987	20.9
High school graduation	1,460	31.0	Others	39	0.8
Drop out of college	194	4.1	Child birth	4,717	100.0
Two-year college	454	9.6	Yes	454	9.6
Four-year university	899	19.1	No	4,263	90.4
City size	4,717	100.0	Independence of child	4,717	100.0
Metropolitan	822	17.4	Co-residence→Co-residence	1,108	23.5
Big city	1,252	26.5	Co-residence→Non co-residence	552	11.7
Small city	2,306	48.9	Non co-residence→Co-residence	220	4.7
Rural	337	7.1	Non co-residence→Non co-residence	2,837	60.1
Car ownership	4,717	100.0	Employment status	4,717	100.0
Yes	2,778	58.9	Employed→Employed	3,097	65.7
No	1,939	41.1	Employed→Unemployed	491	10.4
Equalized income (Unit: 10,000 won)	2057.6	1790.7	Unemployed→Employed	245	5.2
-	-	-	Unemployed→Unemployed	884	18.7
-	-	-	Housing ownership	4,717	100.0
-	-	-	Ownership→Ownership	2,649	56.2
-	-	-	Ownership→Lent	302	6.4
-	-	-	Lent→Ownership	540	11.5
-	-	-	Lent→Lent	1,226	26.0

의 소득과 소비뿐만 아니라 가구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혼인, 출산, 이혼, 사별, 자녀분가와 같은 가구원 변동사항, 주택 및 거주지역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여 이 연구의 주제인 소비유형의 전이와 가족생애주기의 관련성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정보를 갖추고 있다. 또한, 사전에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면접원이 패널인 가구를 방문하여 가구주 본인이나 가구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대면 조사하여 이를 직접 기록하는 방식이고, 설문 후 불성실한 응답이나 무응답, 응답 간 논리적 오류 등을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재설문으로 보완하는 과정까지 거쳐서 자료의 신뢰성도 높다.

이 연구에서는 두 시점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게 한국노동패널 2010년과 2017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4,717 가구를 최종적인 분석대상으로 정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인 4,717가구의 특성 기술통계는 Table 1과 같다.

Table 1을 보면, 가구주의 성별은 남성이 77.1%로 여성 22.9%보다 훨씬 많았다. 가구주의 연령은 평균 53.3세(범위: 21-92세)였다. 가구주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미만(36.3%), 고등학교 졸업(31.0%), 대학교 졸업 이상(19.1%), 전문대 졸업(9.6%), 대학교 재학 및 중퇴(4.1%) 순이었다. 거주지역은 중소도시인 시부(48.9%), 광역시(26.5%), 특별시(17.4%), 농어촌인 군부(7.1%) 순으로 많았다. 차량을 소유한 가구는 58.9%였다. 균등화 개인소득은 연평균 2,058만 원(표준편차: 1,791만 원)이었다. 2010~2017년 혼인상태 변화는 유배우→유배우(69.2%), 상실→상실(20.9%), 비혼→비혼(4.3%), 유배우→상실(2.6%), 비혼→유배우(2.1%), 기타(0.8%) 순이었다. 같은 기간 자녀를 출산 한 가구의 비율은 9.6%였다. 이 기간에 미성년자녀와의 동거 변화를 보면, 미성년자녀 없음→없음이 60.1%로 가장 많았고, 미성년자녀 있음→있음(23.5%), 미성년자녀 있음→분가(11.7%), 미성년자녀 없음→있음(4.7%)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입주형태의 변화는 자가→자가가 절반 이상(56.2%)이었고, 이어서 비자가→자가(26.0%), 비자가→자가(11.5%), 자가→비자가(6.4%) 순위였다.

3.2 변수 측정

3.2.1 종속변수: 2010년과 2017년 소비유형과 두 시점 간 소비유형의 전이

2010년에서 2017년으로의 소비유형 전이가 로짓모형분석의 종속변수이다. 2010년과 2017년 두 시점 간 소비유형 전이는 잠재전이분석을 통해 만들었다. 잠재전

이변수는 2010년과 2017년 각 시점의 소비유형(1) 식비, (2) 교육비, (3) 교통비, (4) 주거비, (5) 의료비, (6) 문화비, (7) 내구재, (8) 통신비, (9) 피복비, (10) 생필품 항목의 지출금액 비율 변수 10개를 투입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해서 (1) 식비중심형, (2) 교육비중심형, (3) 의료비중심형, (4) 내구재중심형 4개 유형을 도출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에서 각 시점에 가구가 해당하는 유형이 전이된 경우 1, 유지된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2010년 어떤 소비유형이었고지와 무관하게 전이가 되는지와 더불어 2010년 64.7%로 비율이 가장 높았던 식비중심형이 다른 유형으로 전이됐는지도 알아봤고, 2017년에도 소비유형이 식비중심형이 아니면 1, 식비중심형이면 0으로 코딩하였다. 1 또는 0으로 코딩된 전이 여부는 이항로짓모형분석의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그다음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으로의 전이가 있었는지도 알아보기 위해서는 2010년의 식비중심형이 2017년에도 유지된 경우 1(기준집단), 교육비중심형으로 전이된 경우 2, 의료비중심형으로 전이된 경우 3, 내구재중심형으로 전이된 경우 4로 코딩하여 다항로짓모형분석의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3.2.2 독립변수: 가족생애주기 변화

소비유형 전이에 미치는 결혼, 출산, 성인자녀 분가, 취업 및 은퇴, 주택 구입 및 점유형태 변동과 같은 가족생애주기의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2010년에서 2017년까지의 혼인상태 변화, 자녀 출산, 성인자녀 분가, 취업상태 변화, 입주형태 변화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혼인상태 변화는 (1) 유배우→유배우, (2) 비혼→비혼, (3) 비혼→유배우, (4) 유배우→상실(이혼, 별거, 사별), (5) 상실→상실, (6) 기타의 6개로 구분했고, 그중에서 유배우→유배우가 기준집단인 더미변수(Dummy variables)로 변환하여 나머지 집단들을 로짓모형에 투입하였다. 자녀출산은 두 시점 사이에 해당 가구에서 자녀를 한 명 이상 출산한 경우 1, 출산한 자녀가 없는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성인자녀 분가는 (1) 미성년자녀 있음→있음, (2) 미성년자녀 있음→분가, (3) 미성년자녀 없음→있음, (4) 미성년자녀 없음→없음의 4개 집단으로 구분한 다음, 성인자녀 분가는 미성년자녀 있음→있음이 기준집단인 더미변수로 변환해서 나머지 집단들과 비교하였다. 취업상태 변화는 (1) 취업→취업, (2) 취업→미취업, (3) 미취업→취업, (4) 미취업→미취업의 4개 집단으로 구분하고, 더미변수로 변환해서 모형에 투입할 때는 취업→취업을 기준

집단으로 정해서 다른 3개 집단들과 비교하였다. 입주형태 변화도 (1) 자가→자가, (2) 자가→비자가(전세, 월세, 기타), (3) 비자가→자가, (4) 비자가→비자의 4개 집단으로 구분한 후, 자가→자가를 기준집단으로 한 더미변수로 변환해서 로짓모형에 투입하였다.

3.2.3 통제변수: 가구주와 가구의 일반적 특성

가족생애주기와 소비유형 전이 간의 관련성은 가구주와 가구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영향력을 통제변수로 모형에 반영하였다. 통제변수는 2010년 가구주의 성별, 연령, 학력, 가구의 거주지역, 차량소유 여부, 균등화개인소득을 포함하였다. 첫째, 가구주의 성별은 남성이면 1, 여성이면 0으로 코딩하였다. 둘째, 연령은 만 나이인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셋째, 학력은 (1) 고등학교 졸업 미만, (2) 고등학교 졸업, (3) 대학 재학 및 중퇴, (4) 전문대 졸업, (5)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구분했고, 더미변수로 변환하고 비율이 가장 큰 고등학교 졸업을 기준집단으로 정하였다. 넷째, 거주지역은 (1) 특별시, (2) 광역시, (3) 시부(중소도시), (4) 군부(농어촌)로 구분했고, 사례 수가 가장 많은 시부를 기준집단으로 한 더미변수를 투입하였다. 다섯째, 차량소유는 자가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 1, 없는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마지막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구 소득과 소비를 감안할 수 있게 균등화 개인소득은 지난 1년의 가구 총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다.

3.3 통계적 분석

3.3.1 잠재프로파일(1단계), 잠재전이분석(2단계)

한국의 대표적인 가구에서의 소비유형이 2010년과 2017년 각각 어떻게 유형화되는지를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으로 알아보고(1단계), 잠재전이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 LTA)으로 소비유형의 전이 양상을 살펴본 다음(2단계),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생애주기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로짓모형으로 파악(3단계)하고자 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이 한 시점에서 통계적 모형적합도지수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유형화를 하는 분류 방법이라면, 잠재프로파일분석을 두 시점의 중단 자료로 확장하여 각 시점에 분류된 유형의 전이를 비교하는 방법이 잠재전이분석이다[24]. 잠재전이분석은 가구가 속한 유형이 시점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전 시점에서의 유형에 속한 가구가 그다음 시점에는 또 다른 유형으로 변동될 확률을 추정한다[25].

1단계에서 2010년과 2017년 시점별 통계적으로 최적의 소비유형 수와 소속 유형을 구하기 위해 유형 수를 2개부터, 3개, 4개, 5개까지 하나씩 늘려가며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하였다. 2~5개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의 다양한 모형적합도지수를 종합적으로 비교 및 판단하여 가장 적합한 모형을 시점별로 선정하였다. 참고로, 모형적합도지수는 그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의미하는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 Adjusted BIC과 0~1까지의 범위에서 0.80 이상이면서 1에 근접할수록 분류가 선명하게 되다는 의미인 Entropy를 기준으로 삼았다[26]. 모형적합도지수를 통해 2010년과 2017년 두 시점의 최적 프로파일 수를 4개씩으로 도출하고, 2단계 잠재전이분석에서는 소속된 유형이 변동될 확률을 결합확률로 계산하였다.

3.3.2 잠재전이분석(2단계)의 결과가 종속변수인 로짓모형분석(3단계)

3단계에서는 잠재전이분석으로 도출한 2010년과 2017년의 소비유형 전이를 종속변수로 하여 이에 영향을 주는 가족생애주기를 알아보고자 하는 로짓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에서는 전체 분석대상 가구를 대상으로 어떤 소비유형이든 전이가 있었던 경우와 유지된 경우를 구분하여 이항로짓모형분석을 하였다. 이어서 소비유형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식비중심형이 다른 소비유형으로 전이됐는지도 살펴보기 위해 이항로짓모형 분석을 하였다. Table 5참고. 마지막에는 식비중심형이 교육비중심형, 의료비중심형, 내구재중심형의 다른 소비유형으로 전이하는데 있어서 가족생애주기별로 미치는 영향력이 서로 다를 수 있어 이를 세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다항로짓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5

4. 연구결과

4.1 2010년, 2017년 가구소비유형 잠재전이분석 결과

2010년과 2017년의 가구소비유형 구분을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 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여러 모형적합도를 종합했을 때 2010년과 2017년 모두 Entropy가 .96, .97로 가장 크고 분류 결과가 선명한 4개 유형을 최적이라고 판단하였다. Fig. 1은 2010년과 2017년최적모형으로 선정된 잠재프로파일분석 4개 유형별 소비항목비율이다. 2010년과 2017년에 모두 식비중심형, 교육비중

Table 2. Model fits of the latent profile analysis results on household consumption

# of types	In 2010					In 2017			
	DF	AIC	BIC	Adj. BIC	Entropy	AIC	BIC	Adj. BIC	Entropy
2	31	303741.7	303941.9	303843.4	0.94	299376.6	299576.8	299478.3	0.95
3	42	300211.4	300482.7	300349.3	0.96	295772.1	296043.4	295909.9	0.96
4	53	296908.3	297250.6	297082.2	0.96	292313.8	292656.1	292487.7	0.97
5	64	294442.7	294856	294652.7	0.95	289864.8	290278.1	290074.8	0.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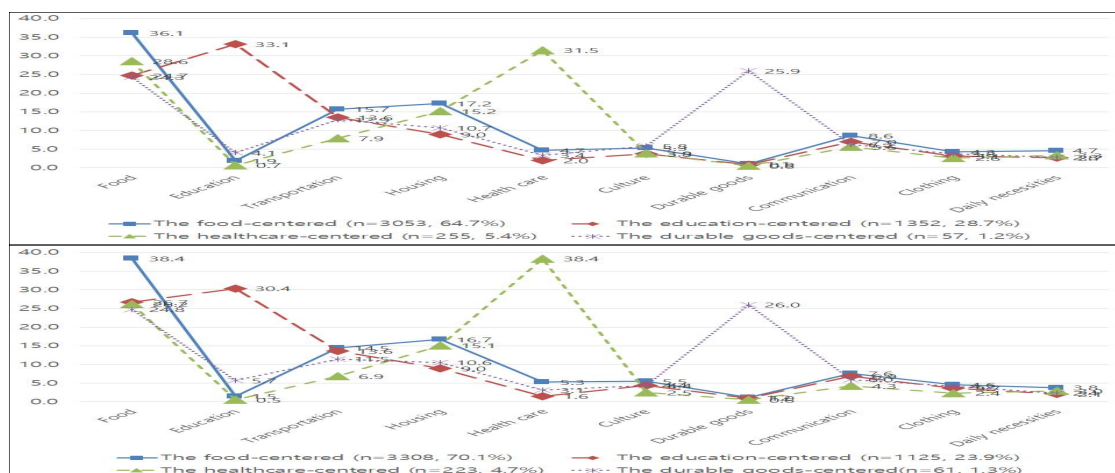


Fig. 1. Results of optimal potential profile analysis on household consumption type in 2010 (top) and 2017 (bottom)

Table 3. Combination Probability on the Transition of Household Consumption Types in 2010 and 2017

Type in 2010→Type in 2010	n	Total sample (%)	Type (%)
The food-centered →The food-centered	2,263	48.0	74.1
The food-centered →The education-centered	606	12.9	19.8
The food-centered →the healthcare-centered	146	3.1	4.8
The food-centered →The durable goods-centered	38	0.8	1.2
The education-centered →The food-centered	824	17.5	60.9
The education-centered →The education-centered	478	10.1	35.4
The education-centered →the healthcare-centered	32	0.7	2.4
The education-centered →The durable goods-centered	18	0.4	1.3
the healthcare-centered →The food-centered	187	4.0	73.3
the healthcare-centered →The education-centered	22	0.5	8.6
the healthcare-centered →the healthcare-centered	42	0.9	16.5
the healthcare-centered →The durable goods-centered	4	0.1	1.6
The durable goods-centered →The food-centered	34	0.7	59.6
The durable goods-centered →The education-centered	19	0.4	33.3
The durable goods-centered →the healthcare-centered	3	0.1	5.3
The durable goods-centered →The durable goods-centered	1	0.0	1.8
Total	4,717	100.0	-

심형, 의료중심형, 내구재중심형의 4개로 소비유형이 분류됐고, 유형마다 비율에는 약간의 전이가 있었으나 순위는 같았다. 2010년에는 식비중심형이 6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교육비중심형 28.7%, 의료비중

심형 5.4%, 내구재중심형 1.2% 순이었다. 2017년에도 이러한 순위는 동일하지만 식비중심형의 비중이 70.1%로 5.4%p 증가한 반면, 교육비중심형은 23.9%로 4.8%p 감소하였다. 2017년 의료비중심형과 내구재중심형은 각

각 4.7%, 1.3%의 비율로 2010년과 차이가 크지 않았다. 가장 큰 특징으로 이름을 정했지만, 식비중심형은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교통비, 주거비, 통신비, 피복비, 생필품의 비율이 다른 유형들보다 높은 특징도 가지고 있다. 반면, 교육비중심형은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주거비, 의료비 비율이 가장 낮다. 의료비중심형은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교육비, 교통비, 내구재, 통신비, 피복비 비율이 4개 유형 중에서 가장 낮다. 내구재중심형은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식비 비율이 4개 유형 중에서 가장 낮았다.

2010년과 2017년 각각을 잠재프로파일분석한 결과인 Table 2와 Fig. 1에서는 소비유형이 대체로 유사해 보이나, 개별 가구 단위에서의 소비유형 전이는 파악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구별로 2010년과 2017년의 소비유형이 어떻게 전이됐는지를 추가로 살펴봤고, 그 결과는 Table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Table 3을 보면, 2010년 식비중심형이었던 가구 중에서 74.1%는 2017년에도 식비중심형이 유지됐지만, 19.8%는 교육비중심형, 4.8%는 의료비중심형, 1.2%는 내구재중심형으로 전이됐다. 2010년 교육비중심형이었던 가구는 35.4%만 2017년에도 교육비중심형으로 같았고, 60.9%는 식비중심형, 2.4%는 의료비중심형, 1.3%는 내구재중심형으로 달라졌다. 2010년 의료비중심형도 2017년에 73.3%가 식비중심형이 되었고, 교육비중심형과 내구재중심형으로 전이된 경우도 8.6%, 1.6%씩이었으며, 의료비중심형이 유지된 비율은 16.5%로 적었다. 사례 수는 적으나 2010년 내구재중심형이었던 가구의 1.8%만 2017년에도 내구재중심형이었고, 대부분은 식비중심형(59.6%), 교육비중심형(33.3%), 의료비중심형(5.3%)으로 전이됐다. 즉, Table 2와 Fig. 1에서는 한국 전체 가구의 소비유형이 대표적인 4개 유형으로 분류되고 시점별로 약간의 비율은 달라지지만 대체로 비슷하며 그 순위는 동일하다는 결과를 보여줬지만, 이와 달리 Table 3의 결과를 통해 개별 가구 단위에서는 소비유형에 전이가 빈번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

4.2 가족생애주기에 따른 2010년, 2017년 가구소비유형 전이

Table 3의 결과에서 지난 7년 동안 소비유형이 전이된 가구가 많았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어떤 특성의 가구에서 이러한 전이가 있었는지를 살펴봤는데, 특히 가족생애주기의 변화에 따라서 가구소비유형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항로짓모형으로 분석하였다.

Table 4를 보면, 혼인상태 변화, 자녀 출산, 성인자녀

분가의 가족생애주기 변화에 따라서 가구소비유형도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혼인상태가 유배우→유배우에 비해 비혼→비혼, 상실→상실은 가구소비유형이 전이될 승산비가 각각 31%p, 27%p씩 낮았다($p<.05$). 미성년자녀 있음→있음에 비해 미성년자녀 있음→분가, 미성년자녀 없음→있음은 가구소비유형이 전이될 승산비가 48%p, 123%p씩 높았다($p<.001$).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가구보다 소비유형이 전이될 승산비가 25%p 낮았다($p<.05$). 하지만 취업상태 변화, 입주형태 변화에 따라서는 가구소비유형 전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 연령, 고등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 특별시와 광역시의 거주지역이 가구 소비유형 전이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의 분석에서 가족생애주기가 소비유형 전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소비유형 전이까지 파악할 수는 없어서 이번 Table 5에서는 유형별 전이를 세분화해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Table 5는 2010년 식비중심형이 2017년 교육비중심형, 의료비중심형, 내구재중심형으로의 전이에 가족생애주기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로짓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Table 5의 Model 1에서 식비중심형에서 전이여부(1=예, 0=아니오)를 종속변수로 한 이항로짓모형 분석 결과, 혼인상태 변화 중에서 유배우→유배우와 비교하여 비혼→유배우인 경우 식비중심형에서 다른 소비유형으로 전이될 승산비가 7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반면,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서는 식비중심형에서 다른 소비유형으로 전이될 승산비가 32%p 낮았다($p<.05$). 성인자녀 분가의 경우 미성년자녀 있음→있음에 비해 미성년자녀 있음→분가($OR=2.93$, $p<.001$), 미성년자녀 없음→없음($OR=1.68$, $p<.05$), 미성년자녀 없음→있음($OR=1.49$, $p<.05$)의 승산비가 모두 높았다. 그러나 취업상태와 입주형태 변화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식비중심형에서 교육비중심형, 의료비중심형, 내구재중심형으로의 전이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상이할 수 있는데 이항로짓모형 분석으로는 이를 검증할 수 없어 추가로 다항로짓모형 분석도 실시하였다. Table 5의 Model 2를 보면, 식비중심형에서 교육비중심형으로의 전이에는 자녀 출산이 상대위험도(Relative Risk Ratio: RRR)를 40%p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또한, 성인자녀 분가는 미성년자녀 있음→있음보다 미성년자녀 있음→분가($RRR=2.98$, $p<.001$), 미성년자녀 없음→없음($RRR=1.76$, $p<.05$), 미성년자녀 없음→있음

Table 4. Results of binary logit analysis on the transition of household consumption type from 2010 to 2017 (Total sample)

Variables	Transition to other types (Ref.: Sample type)		
	OR		SE
Woman (Ref.: Man)	1.29	*	0.13
Age	0.99	*	0.00
Education (Ref.: Under middle school)			
High school graduation	0.80	*	0.07
Drop out of college	0.84		0.13
Two-year college	1.18		0.13
Four-year university	0.99		0.09
City size(Ref.: Small city)			
Metropolitan	0.65	*	0.06
Big city	0.84	*	0.06
Rural	0.99		0.12
Car ownership (Ref.: No)	0.88		0.07
Equalized income	1.00		0.00
Marital status(Ref.: Married→married)			
Unmarried→unmarried	0.69	*	0.13
Unmarried→married	1.26		0.30
Married→Dissolution	1.07		0.21
Dissolution→Dissolution	0.77	*	0.09
Others	1.15		0.39
Child birth (Ref.: No)	0.75	*	0.10
Independence of child (Ref.: Co-residence→Co-residence)			
Co-residence→Non co-residence	1.48	***	0.16
Non co-residence→Co-residence	2.23	***	0.24
Non co-residence→Non co-residence	1.06		0.22
Employment status(Ref.: Employed→Employed)			
Employed→Unemployed	0.95		0.10
Unemployed→Employed	1.06		0.15
Unemployed→Unemployed	0.87		0.09
Housing ownership (Ref.: Ownership→Ownership)			
Ownership→Lent	0.99		0.13
Lent→Ownership	0.96		0.10
Lent→Lent	0.94		0.08
Constant	1.22		0.31
N	4,717		
LR χ^2 (DF)	235.19(26)***		
Log likelihood	-3074.79		
Note: *p<.05, **p<.01, ***p<.001			

(RRR=1.55, p<.05)의 상대위험도가 모두 높았다. 여기까지는 Table 5의 Model 1 이항로짓모형 분석 결과와 비슷한데, 이번 다항로짓모형에서 발견된 차별적인 점은 자가→자가의 입증형태에 비해 비자가→자가인 가구가 교육비중심형으로 전이된 상대위험도가 33%p 높다는 것이다(p<.05). 한편, 교육비중심형, 내구재중심형으로의

전이에 유의하지 않았던 혼인상태 변화의 영향력인 비혼→유배우가 의료비중심형으로의 전이에 미치는 상대위험도가 372%p 높은 것도 추가적인 다항로짓모형을 통해 밝혀낸 결과이다. 하지만 사례수가 적은 내구재중심형으로의 전이에 유의한 독립변수는 검증되지 않았다.

Table 5. Results of logistic model analysis on the transition from the food-centered consumption to other types

Variables	From the food-centered											
	Model 1: Binary logit (1=Transition, 0=Same)			Model 2: Multinomial logit(Ref.:→The food-centered)								
				→The Education			→Healthcare			→Durable goods		
	OR		SE	RRR		SE	RRR		SE	RRR		SE
Woman (Ref.: Man)	1.51	**	0.20	1.63	**	0.23	0.95		0.28	1.72		0.87
Age	0.99	*	0.01	0.98	***	0.01	1.02	*	0.01	0.99		0.02
Education (Ref.: Under middle school)												
High school graduation	1.01		0.12	0.95		0.14	1.21		0.28	0.90		0.43
Drop out of college	0.88		0.20	0.81		0.21	1.03		0.48	1.25		0.99
Two-year college	1.24		0.21	1.27		0.22	0.96		0.43	0.91		0.65
Four-year university	1.12		0.16	1.19		0.18	0.50		0.20	1.38		0.74
City size(Ref.: Small city)												
Metropolitan	0.59	***	0.08	0.56	***	0.08	0.76		0.20	0.57		0.30
Big city	0.82		0.09	0.83		0.10	0.74		0.17	1.04		0.41
Rural	1.03		0.17	0.77		0.16	1.71	*	0.44	1.37		0.78
Car ownership (Ref.: No)	0.81	*	0.08	0.85		0.10	0.76		0.16	0.73		0.29
Equalized income	1.00		0.00	1.00		0.00	1.00		0.00	1.00		0.00
Marital status(Ref.: Married→married)												
Unmarried→unmarried	1.04		0.22	0.90		0.21	1.99		0.96	1.02		0.81
Unmarried→married	1.75	*	0.45	1.44		0.40	4.72	*	2.87	3.64		3.05
Married→Dissolution	0.73		0.23	0.60		0.23	1.28		0.63	0.00		0.00
Dissolution→Dissolution	0.80		0.12	0.79		0.14	0.99		0.31	0.83		0.48
Others	1.25		0.50	1.26		0.53	1.41		1.47	0.00		0.00
Child birth (Ref.: No)	0.68	*	0.13	0.60	*	0.12	0.88		0.50	5.76		6.48
Independence of child (Ref.: Co-residence→Co-residence)												
Co-residence→Non co-residence	2.93	***	0.48	2.98	***	0.52	2.05		0.85	0.41		0.46
Non co-residence→Co-residence	1.49	*	0.29	1.55	*	0.33	1.20		0.53	1.85		1.22
Non co-residence→Non co-residence	1.68	*	0.42	1.76	*	0.47	1.50		0.93	0.13		0.18
Employment (Ref.: Employed→Employed)												
Employed→Unemployed	0.93		0.14	0.81		0.14	1.32		0.34	1.04		0.55
Unemployed→Employed	1.02		0.20	1.05		0.22	0.92		0.41	0.96		0.72
Unemployed→Unemployed	0.89		0.12	0.78		0.12	1.23		0.29	0.79		0.41
Housing ownership (Ref.: Ownership→Ownership)												
Ownership→Lent	0.93		0.18	1.08		0.24	0.70		0.29	0.00		0.00
Lent→Ownership	1.15		0.17	1.29		0.20	0.68		0.26	0.78		0.46
Lent→Lent	1.22		0.13	1.33	*	0.17	0.88		0.20	1.14		0.47
Constant	0.54		0.18	0.67		0.26	0.01	***	0.01	0.02	***	0.03
N	3,053			3,053								
LR χ^2 (DF)	209.16(26)***			374.27(78)***								
Log likelihood	-1640.998			-2080.941								
Note: *p<.05, **p<.01, ***p<.001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 가계가 2010년과 2017년 두 시점의 소비유형은 무엇이고, 두 시점의 소비유형간 가계의 전이

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소비유형간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생애주기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과 2017년 두 시점에서는 동일하게 식

비중심형, 교육비중심형, 의료비중심형, 내구재중심형의 4개 유형이 도출되어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유형이 두 시점 사이에 커다란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Choi[1]의 연구에서도 2010년대 이후 소비비목간 소비비중이 큰 변화 없이 일정해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2010년대 우리나라 가계의 전반적인 소비패턴은 일정한 형태로 귀결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둘째, 한국 가계의 전체적인 소비유형은 두 시점 사이에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거나 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두 시점 사이에서 개별 가구에서 소비유형간 이동은 비교적 활발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두 시점 간 소비유형이 국가 수준에서 외형적으로는 동일하게 보이더라도 생애주기 특성 변화에 따라서 소비유형에 다양한 전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생애주기에 따라 달라지는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소비유형 전이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비혼이나 배우자 상실 상태가 지속되는 가구에 비해 유배우 상태를 유지하는 가구일수록 소비유형의 전이가 발생할 확률이 높았다.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녀가 두 시점에 계속해서 존재하는 가구에 비해 자녀가 성년이 되어 분가한 가구 또는 미성년자녀가 없다거나 있는 가구일수록 소비유형의 전이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계의 대표적 소비패턴유형인 식비중심형에서 다른 유형으로의 전이는 비혼에서 유배우로 혼인상태가 달라진 가구일수록 유배우상태가 지속된 가구에 비해 의료비중심형으로의 전이가 일어날 확률이 높았다. 자녀의 분가 여부는 두 시점에 모두에서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에 비해 자녀가 성인이 되어 분가하거나 미성년자녀가 없는 가구, 또는 함께 사는 미성년자녀가 없었다거나 있는 가구일수록 교육비중심형으로의 전이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 분가하더라도 대학 등록금 등으로 인해 교육비 지출규모가 더 커지거나, 또는 미취학 아동의 학령기로의 진입이 가계의 교육비 지출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교육비중심형으로의 전이가 발생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소비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혹은 기업에서 마케팅 대상으로 가계를 분석할 때 단순히 가계소비유형만을 고려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유형간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함께 고려한다면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계의 소비유형변화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계 전체의 소비유형변화에서 더 나아

가 개별 가계의 구체적인 전이 양상을 이해함으로써 구체적인 목표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 사회는 여전히 자녀의 성장에 따른 교육비 지출이 가계의 주요 소비비목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도 교육비는 지속적으로 가계에 부담이 되는 비목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관련 정책도 계속해서 마련되어 오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의 자녀 관련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고려했을 때 이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2010년과 2017년 두 시점에서 가계의 소비유형을 도출하여 가계의 전이양상을 파악하고,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의료비중심형과 내구재중심형의 표본이 적어 본 연구에서는 이들 유형의 전이양상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들 소수유형에 대한 전이 결정요인도 밝히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2010년과 2017년 두 시점 모두 식비중심형, 교육비중심형, 의료비중심형, 내구재중심형의 4개 유형으로 분류되고 그 순위는 동일했지만, 사회경제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었을 때 유형의 수, 특성, 비율, 순위 등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20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19 사태는 가구의 경제활동과 소비유형에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들은 있지만 2010년 이후 국가 전체적으로 대체로 일관적으로 보이지만 개별 가구들에서는 생애주기의 전이에 따라서 소비유형패턴도 달라진다는 점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 밝혀낸 결과가 신혼부부, 영유아가구, 중년부부, 노인1인가구 등 가족생애주기 또는 생애과정별 다양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경제, 재무, 소비 영역에서 컨설팅,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Choi, H. (2019). *A Study on the period classification and influencing factors of changes in Korean household consumption style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2] Jung, Y. (2000). Consumption expenditure pattern: Research trend and future perspectiv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11(2), 85-101.
- [3] Frank, R. E., Massey, W. F., & Wind, Y. (1972). *Market segmentation*. Burlington: Prentice Hall.

- [4] Joung, W., & Lee, S. (2011). A study on the consumption patterns of poor Household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2(1), 305-331.
- [5] Son, S. (1993). The structure of household consumption pattern. *Journal of Consumer Studies*, 4(2), 51-72.
- [6] Jun, S. (2013). Spending pattern types and their determinants for one-person households in Korea. *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 44(3), 21-43.
- [7] Sung, Y. (2013). Cluster analysis for the consumption expenditure patterns of one-person households of different age group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24(3), 157-182.
- [8] Kim, J. (2016). The determinants of consumption characteristics and patterns of elderly household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36(3), 905-926.
- [9] Yang, S. (2005). An analysis of economic status by expenditure patterns of employed-wife households.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s*, 20, 1-23.
- [10] Choi, A., & Rha, J. (2012). How do consumers search for information in multi-channel environment?: Consumer typology based on their choice of information channe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23(2), 135-164.
- [11] Park, S., & Hong, S. (2017). The effect of baby-boomer retirees' consumption patterns on depression in later life.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7(2), 349-368.
- [12] Cho, D., & Yang, S. (2003). Trends in Households Expenditures: 1980~2002.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s*, 17, 1-20.
- [13] Yang, S. (1991). A study on the changes in consumption patterns of urban households. *Consumer Life Research*, 8, 54-67.
- [14] Yoo, Y. (1984). A Study on the family life cycle model of Korean urban famili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1), 111-129.
- [15] Loomis, C. P. (1936). The Study of the Life Cycle of Families. *Rural Sociology*, 1(2), 180.
- [16] Lansing, J. B., & Morgan, J. N. (1955). Consumer finances over the life cycle. *Consumer behavior*, 2(4), 36-50.
- [17] Kirkpatrick, E. L., Cowles, M., & Tough, R. (1934). life cycle of the farm family in Relation to Its Standard of Living, Research Bulletin No. 121, Madison, WI: University of Wisconsin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 [18] Choi, H., & Choi, H. (2014). A study on the consumption expenditure over the revised life cycle. *Financial Planning Review*, 7(3), 93-125.
- [19] Norton, A. J. (1974). The Family-Life Cycle Updated: Components and Uses. Selected Studies in Marriage and the Family, eds. Robert F. Winch and Graham B. Spanie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62-167.
- [20] Glick, P. C. (1947). The family cycl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2(2), 164-174.
- [21] Wells, W. D., & Gubar, G. (1966). Life cycle concept in marketing research.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4), 355-363.
- [22] Baek, E. (2009). Households' financial structures and the propensity to save over the life cycle stag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20(2), 1-25.
- [23] Chun, H., & Lee, Y. (2007). Income and consumption expenditure patterns of urban salary and wage earner's household over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11(1), 65-85.
- [24] Collins, L. M., & Lanza, S. T. (2010). *Latent class and latent transition analysis: With applications in the social, behavioral, and health sciences*. Hoboken, NJ: Wiley.
- [25] Lanza, S. T., Patrick, M. E., & Maggs, J. L. (2010). Latent transition analysis: Benefits of a latent variable approach to modeling transitions in substance use. *Journal of Drug Issues*, 40(1), 93-120.
- [26] Jung, T., & Wickrama, K. A. S.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17.

최 홍 철(Hong-Cheol Choi)

[정회원]



- 2009년 8월 : 서울대학교 소비자이동학부 소비자학전공(학사)
- 2014년 8월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석사)
- 2019년 2월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박사)
- 2019년 3월 ~ 현재 : 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강사

- 관심분야 : 가계소비, 가계재무, 금융소비자
- E-Mail : widwis@naver.com

유 재 언(Jaeon Yoo)

[정회원]



- 2010년 8월 : 서울대학교 가족이동학과, 사회복지학과(학사)
- 2013년 2월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석사)
- 2017년 8월 : 아이오와주립대 인간발달가족학과(부전공: 노년학, 여성학)(철학박사)

- 2020년 3월 ~ 현재 :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가족현상, 저출생·고령사회, 젠더
- E-Mail : jejowa0205@gachon.ac.kr